



말꾼 아닌 일꾼 뺨을 당신의 한 획

outlook

김영민 교수가 본 6·3 지방선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번 지방선거가 생애 최초의 선거인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쓴다. 그들은 아직 젊은 만큼 마음이 말랑말랑하지 않겠다. 아니, 젊은 끈대들도 넘치는 세상이니 젊다고 모두 말랑말랑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일

부) 중장년층보다는 낫지 않겠다. 오로지 고집만 남은 (일부) 기성세대보다야 낫지 않겠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숭배하거나 혐오하는 상태는 아직 아니지 않겠다.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겠다. 합당한 근거만 있다면 기꺼이 지지 대상을 바꿀 여유가 있지 않겠다. 적절한 이유만 있다면 기꺼이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젊은이란 아직 모색 중인 사람이므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아직 모색 중인 사람이므로. 아직 고민 중인

사람이므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고민 중인 사람이므로.

젊은 시절에 할 두 가지 과업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 왜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싫다고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해 보라. 타인이 버겁다고 모든 관계를 거부해 보라. 결국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삭막한 사막에 버려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하나요?

» 4면 '지방선거'로 계속

중동발 고물가 3%대도 뚫렸다

(5월)

26개월만에 최고... 석유류 24% ↑ 한은 "이번달 물가상승률도 비슷"

소비자물가가 2년2개월 만에 3% 선을 넘어섰다.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충격의 청구서다. 물가·환율·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3고(高)'가 현실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지난 4월(2.6%)보다 0.5%포인트 뛰었다.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치솟은 기름값이 직격탄이 됐다.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뛰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월(35.2%) 이후 최고다. 경유(33.3%)와 휘발유(23.1%)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유가 상승의 여파는 여행·교통은 물론 서비스 물가 전반으로 번졌다.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국제항공료가 33.5% 급등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수선재료·비·세탁료 등 석유를 재료로 쓰는 품목도 줄줄이 상승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대책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추정했다. 이마저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세종=김연주 기자

» 8면 '고물가'로 계속

오늘 선택의 날

- 정청래·장동혁 막판 호소전 » 2면
- 격전지 승부는 오늘 난다 » 3면
- 당락에 운명 걸린 잠룡 5인 » 5면
- 불편한 여의도 '판세 분석' » 6면

지방 창생
지방 소멸 이후, 다시 쓰는 국가 생존 시나리오

도시계획·사회경제학 전문가들의 특별 기고문 수록

지역을 넘어 세대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긴급 제안

“10년 전 지방 소멸이 경고였다면, 지방 창생은 놓쳐서는 안 될 설계도다!”

- ☑ 1,729개 지자체를 9가지 유형으로 해부한 데이터
- ☑ 새로운 미래 전략 보고서 <2100 인구 비전> 공개
- ☑ 일본의 10년, 지방 창생의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 ☑ 마강래(중앙대 교수)·전영수(한양대 교수) 특별 기고 수록

인구전략회의 자료 | 252쪽 | 20,000원

정책을 쓰고, 예산을 짜고, 지역의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